

규방문화로 본 최명희의 『혼불』

김 정 자*

차 례

- | | |
|---------------------------------|---------------|
| 1. 가부장제 사회와 규방문화 | 3. 규방문화와 여성의식 |
| 2. 가족·친족제도와 관혼상제, 그리고 규방 문화의 범주 | 참고문헌
영문초록 |

1. 가부장제 사회와 규방문화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많은 부분을 제압하여 금기와 위반의 문제를 끊임없이 도출하였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여성상이 효와 정절을 삶의 목시로 받아들이고 순종과 희생만을 실천하며 한 평생을 살아 온 모습으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상적인 여성이란 경국지색을 겸비한다는 문제도 중요하였으나, 매사에 소극적이고 수용적이며 다소 부족한 데가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성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게 하고 적극적인 성향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위에 균림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스스로의 자아라는 문제와는 거리가 먼 한스런 생을 살았으며 남성이라는 대주체 안에 종속된 채 그 동일성 속에 함몰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과거 실질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제도이자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도 매우 중요한 제도, 즉 가족과 친족제도, 혼인제도, 상속제도 등을 근래 사회·역사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여성의 문제들이 가부장 사회에서 다만 종속적인 사안에 불과하였다는 편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부장 사회와 여성관은 17세기 이후인 조선조 후기에야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완전한 남성지배와 여성 종속은 우리의 한국사에서 최근의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현상이었다고 주장한다.¹⁾

물론 이전의 고대사회가 남녀 평등사회였다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도 국가적으로 내외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남녀 분별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참여를 제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부장제는 조선후기와 달라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의 선진적인 활약상을 그런 대로 인정했고 가족과 친족을 둘러싼 실질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 같은 여성존중의 전통은 고려시대만이 아니라 조선 전·중기까지 계속 잔존하면서 남녀공존의 역사적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²⁾

남성중심의 사회제도인 가부장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 역사적인 제도이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유교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착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유교문화가 전 사회계층에까지 뿌리를 내린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이다. 삼국과 고려사회에서 유교는 상류층의 교양으로만 중시되었고 실제 일상생활은 불교와 민간신앙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려말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여말선초의 지배층은 불교를 비판하고 주자학적 이념에 따라 국가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일상생활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사림(士林)이 등장하면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의식이 확산

1) 전혜성·김현진 역,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과 업적」, 『한국사 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2) 정창권,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9, pp.103-104.

되고 조선후기 예학의 발달과 별열(閥閥)정치로 문벌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주자학적 가부장제는 전 사회계층에 하나의 사회제도로 정착된다.³⁾ 별열정치란 몇몇 지체 높은 가문끼리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가문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시한 것은 대내적인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이었다. 별열들은 가문의 내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주자가례의 중범에 의해 부계적장자 위주의 가족제도 및 친족제도를 확립했다. 정실부인의 큰아들에게만 가계를 계승하여 조상의 제사를 주관케 하고, 양자제도를 일반화 시켰고 처첩구분과 적서차별을 더 엄격하게 했다. 또한 홀로된 여인의 생존을 위한 재혼도 중범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금지하였다.

이들은 내훈, 여범, 여사서, 계녀서, 열녀서 같은 다양한 각종 수신서(修身書)를 보급하여 자녀들 특히 여성들의 부덕과 행실을 경계하였다.

특히 결혼은 가문간의 결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상대방 가문의 지위가 자기 가문과 맞아야 결혼이 성사되었고, 개인이 아닌 가문 속의 나라는 의식과 가문을 위한 인생이라는 의식이 사회에 널리 퍼졌다. 남성들은 가문의 유지와 창달이란 사명감에 억눌린 채 개인의 의지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만 했다. 또한 여성들도 가문유지를 위해 행실을 조심하며 근신해야 했다. 특히 여성들은 가문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생존기반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가문유지에 힘써야 했다.

여성들은 결혼하면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일상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집안의 음식과 의복의 수발은 물론 온갖 굵은 일들을 도맡아야 했으며 기제사나 차례상을 차리고 손님접대를 위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영일이 없었다. 남성들은 집안일과 무관하고 경제활동에 경험이 없는 선비를 이상으로 하며 예를 지키고 가문유지를 위해서만 마음을 썼다. 자연 여성들은 집안의 경제적 책임까지 맡아야 했다. 여성들은 길쌈, 농업경영과 피나는 절약 등을 통하여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규방의 여성들은 문벌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의범절을 익혀야 했고 각종 교양을 쌓아야 했다. 말씨와 행동에 품위를 갖추는 수련을 해야 했고 특히 효와 열(列)의 서릿발 같은 논리를 몸에 익혀야 했다. 또한 봉

3)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pp. 32-41.

제사와 접빈객의 범절과 여성으로서의 도리와 역사, 일반상식 등의 내용을 담은 책을 읽어야 했다.

여성들은 시집가기 전에 반드시 국문을 익혀야 했으며 그 필법이나 문장의 솜씨가 자기 가문의 품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기본적인 교양을 쌓기 위한 글공부나 독서는 용인이 되었지만 창작을 통한 사회참여는 금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역할과 책임의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규방의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규방문화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규제와 규정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모든 행동과 의식은 남성중심 사회의 제도 속에서 재단하고 억압된 결과 그 것이 마치 여성 스스로의 정체성 이루기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2. 가족·친족제도와 관혼상제, 그리고 규방문화의 범주

비록 고대나 선초·중기의 습속이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제도적 기제에 억눌린 것이 아니었고, 조선후기로부터 개화기까지의 짧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 사안이었다.

우리가 규방문화라고 흔히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의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강성에 포섭되어 있는 양반가문 여성의 생활 속에서 형성되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친족 제도와 관혼상제의 습속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제도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비록 규방문화의 문제들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의 많은 부분이 여성(규방)과의 관계에 엮물리어 있다. 이 제도나 습속의 외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남성의 힘의 작용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성의 몫이 고스란히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관혼상제의 엄정한 습속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 남자들이 외면 수습을 하는 동안 여성들은 거기에 따른 음식 만들기, 의복 만들기, 손님 겪기 등 수많은 일들을 도맡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친족제도의 서릿발 같은 엄정성 속

에서 여자의 위치나 존재는 종속적이었고, 스스로의 진정한 자아를 방기한 채 끝없는 인고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 인고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예의범절을 익혀야 했고 각종 교양을 쌓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닦았다. 규방의 문화는 이러한 제반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 나간 양반층 부녀자들의 생활과 함께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규방 문화의 제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을 그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혼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제도와 습속들을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을 수용했으며 또 극복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2.1. ‘대실’ 바람의 물결과 혼례

“부서인재에배에(婦先再拜).”

혼례 의식의 순서를 적은 홀기(笏記)를 두 손으로 받들어 정중하게 펼쳐 들고 예를 진행하는 허근(許謹)의 목소리는 막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허근은 신부의 종조부이다.

신부가 먼저 두 번 절 하라는 말의 꼬리를 끌며 마당에 올리자, 신부의 양쪽에 서 있던 수모(手母)가 신부를 부축한다.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다홍 비단 바탕에 굵이치는 물결이 노닐고, 바위가 우뚝하며, 그 바위 틈에서 가웃 고개를 내민 불로초, 그리고 그 위를 어미 봉(鳳)과 새끼 봉들이 어우러져 나는데, 연꽃·모란꽃이 혹은 수줍게 혹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는 신부의 활웃은, 그 소맷부리가 청·홍·황으로 끝둥이 달려 있어서 보는 이를 휘황하게 하였다.

“하이고오, 시상에 위저면 저령코롬—”

초례청을 에워싼 사람들이 뒤쪽에서 누군가 참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다. 거의 안타까운 목소리이다.

신부는 다홍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리며 재배를 하고 일어선다.

한삼에 가리워졌던 얼굴이 드러나자, 흰 이마의 한가운데 곤지의 선명한 붉은 빛이, 매화잔(梅花簪)의 푸른 청옥 잠두(蠶頭)와 그 빛깔이 부딪치면서 그네의 얼굴을 차갑고 단단하게 비쳐 주었다.

(...)

“부우재에배에(婦又再拜).”

신부가 다시 두 번 절을 하자 신랑은 답으로 일배를 한다.

(...)

“거배에상호서상부하이(舉盃相互婿上婦下).”

서로 잔을 들어 신랑이 위로, 신부가 아래로 가게 바꾸시오.
허근의 소리가 다시 울린다.

(...)

세 번 째 술잔은 표주박인 것이다. 원래 한 통이었던 것을 둘로 나눈, 작고 앙징스러운 표주박의 손잡이에는 명주실 타래가 묶여 길게 드리워져 있다. 신랑 쪽에는 푸른 실, 신부쪽에는 붉은 실이다. 그것은 가다가, 서로 그 끝을 정교하게 풀로 이어 붙여서 마치 한 타래 같았다.

이제 이렇게 각기 다른 꼬타리의 실끝이 서로 만나 이어져 하나로 되었다. 두 사람 한 몸을 이루었으니, 부디부디 한평생 변치 말고 살라는 뜻이리라.

그러나 어려운 것은, 그 표주박에 가득 술을 부어 술잔을 서로 바꾸어 마셔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술잔을 바꾸면서 술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된다. 또 실이 얽히거나 꼬여서는 더욱 안된다. 술방울을 흘리면 흘린 쪽의 마음이 새어 버리고, 실이 얽히면 앞날에 맺힌 일이 많아, 그만큼 고초가 심하다고 하였다.

(...)

그만 실이 꼬이더니 얽히고 만 것이다.

췌!

허담이 허를 찼다.

하이고오, 어찌꼬오……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소요가 일었다. 그 수런거림은 불길한 음향을 남겼다. 물론 그것은 작은 매듭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였다.

(...)

“예피일철사양(禮畢撤床).”

(...)

“각조옹기소오(各從其所).”

- 『혼불』 (1), pp. 18-21.

최명희의 『혼불』은 효원의 친정곳 대실 [竹谷]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의 술렁거림으로 시작된다. 대숲에서 이는 바람 소리는 청명하고 별밭이 고른 날에도 늘 소소한 바람이 술렁이었다. 더우기 혼인이 치러지는 이 날에는 구름이 잡혀있고 잔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물결 소리를 썩아 내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시늉을 대숲이 먼저 하는 것이었다.

최명희가 『혼불』의 시작 부분에서 대실의 대숲바람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것은, 바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삶에서 겪어야 할

갖가지 애환들을 암시하고자 함이다. 더구나 대숲의 거센 바람을 배경으로 하여 효원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당당한 기운을 돋보이게 한다. 그 당당함과 드센 듯한 인상 때문에 신랑 강모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효원과의 조약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 요인을 만들기도 한다.

혼례식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신랑신부가 표주박 술잔을 바꾸어 마실 때 표주박에 붙여져 있는 청실과 홍실이 얽히지 않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기 마련이다. 워낙 명주실이 가늘고 부드러워서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도 제 타래에서 제 실날끼리라도 얽힐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 신랑신부의 명주실이 얽혔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버리지 못한다.

신부 효원의 화려한 혼례복장은 보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일생에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혼례식 때와 죽음을 맞이하여 저승길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될 때이다. 법도 있는 가문에서 윤택하게 자란 딸인 효원의 혼례의상이 눈부시고 화려할 것임은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결혼을 중시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혼은 조선 양반계급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결혼은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사회에서 신분유지의 요건이 되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했다. 신분제가 철폐된 지 오랜 뒤로서 『혼불』의 실제적인 시작 시대인 1936년에도 결혼에 대한 이러한 관념에는 변함이 없다. 결혼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가계를 계승할 남아를 출산하며 가문을 영속시키는 지극히 실용적인 제도이며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기능으로서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⁴⁾

결혼은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경사스러운 의식이다. 혼례식을 치르는 과정은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설렘을 줌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게 하는 집단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예시한 부분은 육례의 첫 번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 신부는 몇 겹으로 싸고 감은 감옷 같은 옷에 짓눌려 압박감과 무

4) 이해경, 『혼불』에 나타난 가족-모티프의 풍속화,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창간호, 1999, p.220.

게로 숨을 내쉬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네는 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고쟁이를 입고, 그 위에 또 너른 바지를 입었는데, 너른바지 위에 대습치마를 입었다.

대습치마는 모시 속치마였다.

모시 열두 폭에 주름을 잡아 만든 이 속치마의 단에는 창호지 받친 흰 비단이 손바닥만한 넓이만큼 대어져 있어, 그렇지 않아도 풀을 먹여 날이 선 모시 바탕에 힘을 받쳐 주는 것이었다.

수몽니 당숙모는 효원의 가슴을 동여매듯이 치마 말기를 힘주어 묶었다. 무명 말기가 나무 판자처럼 가슴을 압박했다.

그 대습치마 위에, 드디어, 속옷으로는 마지막인 무지기를 입었다. 한 허리에 달아 붙인 것이라, 예닐곱 가지나 포개 입은 속옷 위에 더욱 더 부하게 부풀어 보였다. 길이가 짧아서 발등까지 내려오지 않는 까닭에 ‘발없는 치마’, 무족(無足)치마라고도 하는 이 무지기는 치마허리에서 무릎까지 닿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삼층짜리도 있고 오층짜리도 있는데 신부옷이라 효원은 호사스럽게 일곱층짜리를 입는다. ‘무족’이 치마라서 무지기인가, 무지개같이 물들어서 무지기인가.

층층마다 얇은 일곱 색의 물감을 들어 은은한 그 빛깔은 이름 그대로 마치 무지개처럼 고와서 보는 사람을 취하게 하였다. (…) 대소가에서 가장 복 많은 부인이라고, 곳은일 안 보고 살아온데다가 첫아들을 낳고, 오복(五福) 두루 갖춘 사람이 신부 시중을 들어야 한다 하여 당숙모가 수모 노릇을 한 것이다.

(…)

같은 속치마지만 대습치마로는 덧단까지 댄 하단을 병병히 퍼지게 하여 커다란 둥그러미를 만들고 무지기로는 허리를 층층이 살려서 뻗뻗하게 힘을 준 다음, 드디어 다홍치마를 겹쳐 입으니, 그야말로 덩실한 그 차림 하나만으로도 온 방안이 풍성하게 차 오르면서, 정말 옛말대로 서도 앉은 것 같고 앉아도 선 것 같이 보였다.

아래 옷을 치장하는 것에 비하여 윗도리는 오히려 허술했다.

살빛 같은 연분홍으로 물들인 명주 속저고리 하나를 입고는 그 위에 바로 초록 삼회장 저고리를 입었다. 나비처럼 가벼운 저고리였다.

그리고는 끝으로 도포보다 커다랗고 호화로운 다홍의 활옷을 입고, 붉은 공단에 심을 넣어 봉황 무늬를 금박으로 찍은 대대(大帶)를 띠어 단단히 묶었다.

“인젠 조금만 참아라. 신랑이 시원하게 풀어 줄 게다. 그 손이 약손이지. 녀의 손은 다야 소용없는 것이다.”

재종조모가 농담을 던지자 방안의 부인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그 웃음에서 은근한 비밀이 번져났다.

그러나 지금 그네는 혼자 앉아 있는 힘을 다하여 허리를 버티면서 무너

질 것만 같은 몸을 건디고 있는 것이었다. 가슴에서 쥐가 나는 것 같았다. 한쪽이 저르르 저리기 시작하더니 그만 감각이 없어지는데, 주먹을 쥔 손이 힘없이 풀려 버린다. 손가락 꼬트머리가 차게 식으며 저희끼리 선뜻하게 부딪친다.

(...)

내 이 자리에서 꼭 고꾸라져 죽으리라. 네가 나를 어찌 보고……

이미 대숲을 맞이하는 대숲의 바람소리가 술렁이며 어둠을 털어 내고 있는데도 효원은 그러고 앉아 있었다.

- 『혼불』 (1), PP.41-44.

결혼은 탄생과 죽음과 더불어 인간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혼불』에서는 그러한 시작에서의 설렘이나 기쁨이 없다.

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고쟁이 등등을 입고 그 위에 다시 너른바지와 대숲치마를 입은 신부는 그 위에 다시 무지기를 입고 마지막으로 다홍치마를 입고서 종일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 첫날밤 신랑 강모의 머리 속에는 강실이 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부 효원은 혼자서 온통 밤을 새우면서도 ‘내 이 자리에서 꼭 고꾸라져 죽으리라.’고 모질게 다짐을 한다. ‘네가 나를 어찌 보고’ 이러느냐는 혼잣말은 효원의 자아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자부심과 절망을 동시에 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자부심의 근저에서 효원은 절망을 던고 일어 설 것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자세를 보인다. 그 새로운 시작은 신부 효원에게는 한 집안의 여성가장으로서 의연히 서기 시작하는 시작이며 강모에게는 설자리를 잃은 식민지 가장으로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⁵⁾

효원이 여성가장으로서 의연히 설 것이라는 기대치만큼 그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인고의 세월을 요하는 가는 또한 불 보듯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겹겹이 그의 몸을 압박해 오는 혼례복의 구조는 시집살이의 무거운 압박감과 막중함의 또 다른 의미 매김으로 자리잡게 된다.

신부의 혼례복으로 본 규방의 의식구조란 이처럼 다중적·중층적 의미망으로 짜여져 있다.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나마 신랑의 따뜻한

5) 이해경, 같은 책, p.222.

손길이고 보살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혼불』에서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마저 차단되어 있거나 동떨어져 있다.

새벽을 맞이하는 대숲의 바람 소리가 어둠을 털어 내게 될 때까지 그대로 꽃잎이 앉았던 효원이 자신의 활옷을 차근차근 벗고 녹색저고리 다홍치마로 갈아입는 장면에서 우리는 규방의식의 엄정함과 서릿발 같은 규범을 읽게 된다. 여인의 부덕이란 언제나 자기희생을 근본으로 하고 남편과 어른을 공경하며 집안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해 나가야 하는 데 있다. 규방의 여인들은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의 뿌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오직 그녀들에게는 외적인 인격으로서의 페르조나만 있을 뿐이다. 페르조나가 완벽할수록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깊숙이 그 실체를 숨기고 만다.

『혼불』에서는 문중의 누이와 상피 붙어 고통을 겪던 끝에 자살하고만 강수의 망혼제가 있다. 산사람의 혼례만이 아니라 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는 영혼결혼식이 있다. 강수의 원혼을 달래는 영혼결혼식이 있는 어둠 속에서 또한 강실과 강모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 점은 뒤의 부분에서 다시 상론하게 될 것이나, 영혼의 한을 풀어 주고자 하는 의식과 함께 강모와 강실의 새로운 합일이 이루어져 또 다른 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구성이 『혼불』에 나타나는 혼례의 특성이다. 순결과 열(列)의 의식이 엄격한 규방문화의 의식으로 여전히 잔존하고 있던 시대에, 강모와 강실의 결합이란 어떠한 규율의 엄정함이 따르게 될 것인지 독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혼례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따르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규방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문화의 문제이다. 부엌의 찬모를 중심으로 행랑어멈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지만 반듯하게 문중의 위상을 드러낼 만한 음식들은 규방에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상객과 신랑이 받는 큰상에 쓸 음식과 합진아비나 수행한 사람들이 먹을 상에 쓸 음식들은 감히 아랫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엌에서 만드는 음식이라도 규방의 음식 솜씨 있는 여인네들이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친 질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마련이다. 간장·후추·깨소금·마늘 등이 서로 섞이는 과정 하나에서도 그 집안의 전통과 범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2.2. 시집살이

여성들의 시집살이 이야기나 고부간의 갈등구조는 전래되는 민요나 각종 서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시집살이가 어렵지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성 모두에게 시집살이는 절대수용할 수밖에 없는 생존조건으로 숙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비인간적인 여성억압적 질곡이라는 국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여성들은 삶에서의 작은 행복들을 기대하고 꿈꾸었을 것이다. 가족 상호간에 인간적인 유대가 확인되는 따뜻한 시집살이도 있는 것이다.⁶⁾

효원의 방에는 아직 불이 밝혀져 있다.

청암부인이 울촌택과 함께 거처하는 큰방의 등불은 한식경 전에 꺼지고, 잠시 후에 사랑채의 큰사랑에 불이 꺼졌다.

그러니, 이제 안채의 큰방과 대청마루 하나를 사이에 둔 효원의 건넌방에 불이 꺼질 차례인 것이다.

웃어른의 방에 불이 꺼지기 전, 그 아랫사람들이 먼저 불을 끄고 잠들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 그렇게 순서를 지키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울촌택이 이 택으로 시집와서 건넌방에 든 그날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지켜져 온 일이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만, 그것은 감히 누가 깨뜨릴 수 없는 불문율처럼 위엄있게 밤마다 행하여졌다.

울촌택은 효원이 시집오기 며칠 전에, 좋은 날을 받아 청암부인이 거처하는 안방으로 옮겨 앉았다. 그리고, 새로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를 위하여, 이때까지 기거해 오던 건넌방을 물려주는 것이다.

(...)

중년의 며느리는 새며느리한테 자기가 쓰던 방을 물려주고, 안방으로 들어가 노년에 이른 시어머니와 함께 기거하는 것이 상례였다. 사람들은 이 안방을 큰방이라 하였다.

“내가 이런 날을 기다리며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었느니라.”

울촌택이 큰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날, 그네가 절을 하였을 때 청암부인은 탄식처럼 이야기했다. 그 목소리에는 할 일을 다하고 난 사람의 감개와 허탈이 엉기어 있었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다야 잘 되었다.”

(...)

그 청명한 햇빛에 청암부인의 허연 머릿결이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그것

6) 이혜순 외 공저,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p.462-463.

은 서리를 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센 줄을 몰랐던 울촌택은, 마당에 서서 짐 나르는 것을 바라보는 청암부인의 모습에 까닭없이 가슴이 철렁, 하여 손끝이 떨렸다. (...)

“죄송스럽습니다.”

울촌택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 소리 속에 간곡함이 배어났다. (...)

“죄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당치도 않다. 내……이런 날을 보고 죽으려고 일찍이 젊은 날에 살아 남았던 것이 아니냐. (...)”

- 『혼불(1), pp.171-173

청암부인과 그 며느리 울촌택은 새며느리 효원을 맞이하면서 합방의 예식을 치른다. 청명한 햇발에 머릿결이 허영게 센 것을 보면서 며느리 울촌택은 가슴이 철렁하고 손발이 떨린다. 온 집안을 누르고 있던 숨막히는 기상의 한쪽이 아침나절의 서리와도 같이 알게 모르게 스러지는 것을 느끼며 무언지 모르는 심회를 가누지 못하는 울촌택이다. 거대한 버팀목으로 집안을 감싸 안고 있던 청암부인의 기상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손끝이 떨리도록 두려워지는 며느리다. 청암부인의 기상에 놀려 큰소리 한 번 제대로 내칠 수 없었던 울촌택이었으나 오랜 세월 쌓여진 고부간의 유대는 그들 두 사람의 심기 속으로 전류처럼 따뜻하게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갓 신행 온 신부의 방에서 깊은 밤중에 한숨소리가 새어 나가서는 안 되겠기에 효원은 소리를 억눌러 죽인다. 강모는 신행 오던 날 밤이 늦어서야 마지못한 듯 건넌방으로 들어와 효원의 맞은 편에 다리를 개고 앉더니 눈을 내리 뜬 채 ‘나는 아무래도 동경으로 가야겠소,’라고 말한다. 효원은 가슴이 철렁하여 강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효원이 느끼는 깊은 절망은 불길한 예감을 머금고 있었다. 효원은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서, 다음날 밤부터는 쉽게 불을 끄지 못하고 한밤의 허리가 겨워지도록 홀로 그렇게 앉아 있게 되었다.

효원은 등불을 끄고 누워도 대이파리를 때리는 빗소리가 가슴을 적시는 것을 느낀다. 누웠다가도 홀연 다시 일어나 앉아 불을 밝혔다. 그러는 효원을 시어머니 울촌택이 안방으로 불러 들인다. ‘내 이런 말까지 하기는 안 되었다만, 글 읽는 서방님의 방도 아니고 젊은 새각시, 시집오자마자 그날부터 밤마다 불

이 안 꺼지고, 석달 열흘이 넘어가도 깜박깜박 불빛이 새어 나가면, 동네에 쓸데없는 말 난다. 사람들이란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 모르느냐? 이후로는 잠이 좀 안 오더라도 일찍 자리에 들어가라.’

시어머니의 매몰찬 말에 새머느리 효원은 이런 것이 바로 시집인 거로구나 하고 깨닫는다. 밤이면 서책을 가까이 하는 줄도 알지만 일단 출가하였으면 아녀자의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시어머니 율촌택은 준열히 나무란다. 어린 시절부터 제주가 뛰어나고 문장이 아름다운 규수들이 혼인하여 시집에 들면 붓을 꿇고 서책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계녀서』나 『내훈』의 덕목들을 요구하는 가르침이다. 아내는 집안에서 옷과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주관해야 한다. 가정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혹 여자가 총명하고 제주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가장을 내조하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는 등등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이다.⁷⁾

‘남편을 하늘같이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도리이며 여자가 죽어 지내야 집안이 화평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성품이 강철같은 사람은 자기 남편 앞길에 운수를 가로막는 법이다. 여자 때문에 남자의 기가 눌려서야 어디 집안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조근조근 따지듯이 말하는 시어머니 율촌택의 품이 무언가 단단히 버르고 있는 사람 같았다.

율촌택은 강모가 효원의 방에 들지 않는 사실을 두고 너도 내 말을 들으면서 짐작한느 바가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 효원은 시어머니의 앞인테도 그만 얼굴이 별정계 상기되어 눈꼬리가 가늘게 좁아진다. 율촌택은 효원의 앞에 반진고리를 밀어 놓았다. 반진고리에는 효원이 폐백을 드릴 때 남색 치마에 받쳐입었던 저고리다. 아직 저고리의 풀냄새도 덜 빠진 옷이었다. 새머느리를 보았으니 나도 머느리 손에 저고리를 얻어 입어야 겠다. 뜯어서 새로 푸새하여 곱게 지어 보라는 시어머니의 영을 받아 효원은 늦화로에 갓불을 담아다 놓고 인두와 인두판을 췌겼다. 밤에는 등축을 끄고 자리에 들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효원은 일을 두고 잠자리에 들 수는 없었다. 그네는 꼬박 밤을 새워 저고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안방에서 저고리를 받아든 율촌택은 못마땅한 얼굴로 접어놓은 소

7) 이배용 외,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p. 93.

매를 획 짓혀었다.

“이게 저고리냐?”
 하고 차갑게 말했다.
 효원이 놀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아무러면 내가 시에미 저고리를 이렇게 허수롭게 안단 말이나? 내가
 어른을 어른처럼 대한다면 그러지는 못하리라.”
 율촌택의 음성은 가시가 돌아 있었다. (...)
 율촌택의 얼굴이 파르르 떨린다.
 “감히 네가…….”
 저고리를 움켜쥐는 손도 떨린다.
 “나를 업수히 여기다니.”
 그러면서 움켜쥔 저고리를 들고 찬 바람이 나게 대청마루로 나가, 마당에
 그대로 패대기를 치며 내던져 버린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
 효원은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다. 하인 비복들 앞에서 당하는 수모로 인하
 여 그 기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내 이대로 이 자리에서 꼭 고꾸라져 죽으리라.
 (...)
 율촌택은 푹푹하게 선 채로 효원을 매섭게 내려다보았다. (...)
 무슨 정신인지 모르고 건넌방에 들어와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그제야 비
 로소 차가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린다. 그것은 가슴을 썩늘하게 적시며
 속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가는 눈물이었다.

- 『혼불』 (1), pp. 247-250.

효원은 시어머니 율촌택이 새파랗게 노하여 내동댕이친 저고리를 침착하게 주워 빨아서는 다시 저고리를 만들어 받쳤다. 그러한 며느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율촌택은 기가 질리고 만다.

매안에 효원의 친정 아버지 허담이 들리어 며칠간 유하다 갔다. 부녀상봉이라고 하나 친정아버지와 효원은 마주 앉을 겨를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법도였다. 시가에 어른들 업존하신타 저희 친정에서 살불이가 왔다고 해서 버선발로 뛰어 나간다가나 그 곁에 붙어 앉아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것은 본데 없는 것이었다. 범상한 낮빛으로 은근히 교감하고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비켜서서 친절불이를 대하며 시택에 자신이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도리였다. 들이서 낮은 소리로 속삭이거나 남모르게 무엇을 주고받으며 눈물을 짓는 것은 결코 가격(家格) 있는 집안의 풍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돈댁을 방문한 친정 쪽에서도 출가한 여식을 대하여 지켜야 할 은연중의 불문율이었다. 허담이 떠나는 날, 효원은 큰사랑에 좌정하신 아버지께 마루에서 하직인사를 올렸다. 아버지는 은혜로이 높으시니 여식은 문외배(門外拜)로 방문 밖에 엎드려 공례로 큰절을 하는 것이다.

허담은 묵묵히, 수그린 여식의 노란 저고리 등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며 말했다. ‘삼가 공경을 다하여 조석으로 어른들 지성껏 모시고, 이서방 잘 섬겨라. 아버지, 간다.’

효원은 눈물어린 고개를 수긋하였다. 항상 부지런하고 너의 규문(閨門)의 예에 어긋나지 말아라고 타이르는 친정아버지를 배웅하면서 효원은 목이 막혀 대답을 못한다.

규방 문화권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여인들에게는 일반 여염집이나 행랑채의 아랫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가사노동에서는 그나마 많은 부분이 면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문의 명예와 양반으로서의 체신을 지켜야 하는 엄한 규율과 법도 속에서 규방의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중압감이란 아랫사람들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2.3. 태교·임신, 그리고 흡월(吸月)의 함정

흡월(吸月)이란 흔히 달을 먹는 풍속을 말하며 흡월정(吸月精)이라고도 칭한다. 달이 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음(陰)의 정기를 받아들여 여성의 음력(陰力)을 보강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자들은 시집갈 날을 받고 나면 달밤에 달먹는 방법을 고되게 훈련받곤 했다. 이것은 달이 갓 뜰 때 달을 향해 숨을 들이켰다가 뱉어내는 것으로, 이 한 번의 숨쉬는 것을 일기통이라 한다. 일기통 때마다 손뼉을 치며 한 숨통, 두 숨통을 헤아려 여덟 숨통이 될 때까지 숨을 멎었다가 크게 내뿜는다. 그리고는 다시 여덟 숨통 끝에 크게 숨을 들이킨다. 이렇게 하기를 3, 7, 9, 기수 번으로 하였다. 이것은 매우 힘들어서, 달을 마시다가 숨이 막힐 지경이면 그만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한다. 시집가는 날도 보

름날 전후로 날을 잡아 그 전 날 밤에는 달이 뜰 때 달이 하늘 북편에 이르렀을 때, 또 달이 질 때 등 세 번이나 달을 마시도록 시키곤 했다. 궁중에서도 왕비나 후궁, 특히 승은(承恩)을 입고 싶은 나인들은 밤새워 27기통이나 달을 먹기도 했다.⁸⁾

달빛 아래서 청암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효원의 흡월정이 행해졌다. 효원은 온몸에 정신을 모아 티끌만치도 달빛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아홉 숨통을 마시었다. 효원은 기어이 끈기를 갖고 아홉 번까지 해내고 말았다. 그러더니 그네의 얼굴빛이 달빛처럼 과랴게 바래면서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효원은 정수리까지 차 오른 달빛에 떨미를 일으키며 고푸라졌다. 그때 울촌택이 달빛을 마시는 효원에게서 느낀 것은 무서운 집념과 오기와 범접할 수 없는 기상이었다.

.....부디 아들 하나 태워 주소서.
엎드린 부인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천만 마디 말보다도 더욱 아픈 심정 한 토막이, 밤의 가슴에 옹이로 박힌다.

- 『혼불』 (1), p.257.

아들 낳기를 원하는 풍속은 무서운 끈기와 집념으로 행해진다. 효원의 흡월정 의식은 남아를 얻기 위한 임신과 태교로 이어짐으로써 양반집 규방의 새로운 삶과 생성을 가져다주는 기제로써 차용된다.

청암부인은 두 팔을 벌려 커다랗게 원을 그리면서 손을 모아 함장한다. 함장한 손을 가슴에 붙이고 한동안 서 있던 그네는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부디 아들 하나 태워'달라는 소망을 효원의 방문 앞에다 바치며 절을 한다.

아들 낳기를 바라는 여러 풍속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여성이며, 이들에게 어렵고 험난한 고행이 요구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대부분 그 책임이 여자에게로 돌려졌으므로 여성들은 온갖 행위를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8) 이배용 외, 같은 책, p. 26.

기도와 주술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되고 씨받이 여인을 찾거나 씨내리를 들이는 일도 있었다. 씨받이의 경우에도 아들을 낳아주면 논밭 몇 지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딸을 낳으면 양육비로 곡식 몇 섬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이 남자쪽에 있을 때이를 대신할 남자를 구하여 후손을 보던 방법이 씨내리이다. 이것은 은밀히 추진되었지만 대개는 바라던 아들을 낳고는 여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아들을 낳는 일은 여자의 삶에서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효원은 정수리까지 차 오른 달빛에 멀미를 하여 고꾸라질지언정 흙월의 의식에 온 몸과 정신을 쏟아 붓는다.

효원의 흙월이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한 의식으로 삶과 새로운 생성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혼불』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달을 먹는 풍속’이 행해진다.

머슴 춘복은 오랜 동안 강실을 연모하였지만 신분의 구분이 엄연한 세상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소망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춘복은 강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집념에 차 있다.

아아, 작은 아씨.
 춘복이는 터지는 한숨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 것으로 만들리라.
 그런데 이것이 웬 일인가.
 그의 눈앞이 누우렇게 덮치듯이 밝았다.
 그 불잉겉같이 이글거리는 누우런 빛에 부딪친 순간, 춘복이는 너무나 약연하여 질린 채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
 춘복이는 입을 크게 벌리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달의, 싹누렇게 뒤집히며 불덩이를 일으키는 소용돌이 달빛을 깊이깊이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목으로 빨려 들어오는 달빛은 가슴을 깎으며 아프게 비집고 내려가 다시 폐장을 가득 채웠다. 이윽고 가슴이 벌어져 쪼개질 것 같은 통증에 그는 잠시 숨을 멈추었지만, 그곳에 빠다귀처럼 걸린 달빛을 아랫배로 밀어내리고, 다시 무서운 기세로 흙월을 하였다. 머리꼭지 정수리에서 어깨뼈와 가슴팍, 그리고 단전과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터질 만큼 차 오르도록 달빛을 들이켜는 춘복이의 몸은 둥그렇게 부풀어 올랐다.

- 『혼불』 (5), pp.182-185.

춘복의 홉월은 작은 아씨 강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양반의 씨를 하나 받아 내리고자 하는 깊은 욕망이다. 거기에는 강실을 겁탈함으로써 아랫것들, 천것들이라고 하대를 받는 거명굴 사람들의 한을 풀어 보고자 하는 신분상승 의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머슴 춘복의 홉월은 다자를 도구화하여 신분상승의 길로 치닫고자 하는 폭력적 기제이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은 비록 양반사회에서의 가문존속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종족보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망은 인간사회의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씨받이나 씨내리기의 풍속은 양반가문에서나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또한 그 모든 책임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볼 때 여기서도 규방문화의 엄정한 규율을 읽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4 貞·列의 담론과 여성

‘열(列)의 행위란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일종의 관계방식이며, 그 근처에서 여성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 열녀는 곧 여성섹슈얼리티에 대한 집단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일종의 여성 관리의 메카니즘이다. 성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의미화하고 개념화하는 문제는 역사문화적인 것이다. 성에 관한 개념과 의미는 성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성에 관한 모든 정의는 성에 관한 담론이 된다.⁹⁾

아버지의 존재확인으로부터 혈통의 순수성 확보와 연관되어 여성의 올바른 태도가 요청된다. 성의 순결이라는 관념이 ‘貞’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貞과 節이 연용되어 정절이 되면 남편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순결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한 충실성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정절은 한 남자에 대한 의무 개념일 뿐 아니라 남편과는 별도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려 후기에 대두된 신유학적 열(列)이념은 조선전기에 접어들면서 사대부 여성들의 개가금지와 수절강화라는 구체적인 제약과 그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

9) 한국고전여성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p.38.

다. 조선조 후기에는 정절관념이 전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인물의 신분과 상관없이 열녀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어 나타난다. 남편을 따라 죽는 여성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존재론적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인격적 관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여성은 자신의 존재의의를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남편의 종속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행위는 비록 자발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학습된 이념의 맹목적인 실천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 까마득한 선대 할머니 한 분의 비석이 살아 있는 사람의 숨결보다 더 위안이 되어 줄 것만 같다.

그러나, 다리거 후들거려서 걸음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이미 내가 힘이 다하였는가 싶기도 했다. (...)

그 어른은 꽃다운 나이 스물하나에 매안의 이씨 문중으로 시집을 왔으나, 불행히도 신랑은 홍역을 치르다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

피눈물로 망부의 제사를 마친 그 어른은, 이승에서 못다한 부부의 인연을 다시 내생에서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침내 장문의 유서를 남겨놓고 자진하였다.

이후 정조 때에 상(上)께서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히 고급에 없는 열녀의 기상이라 크게 칭찬을 하셨다.

물론 정문(旌門)까지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 『혼불』 (1), 232-234.

자진한 선대 어른의 유서를 읽으면서 청암부인은 하염없이 옷깃을 적시며 낙루한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당신은 차라리 복인이었다고 말하는 청암부인은 유서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채 목이 메인다.

또한 『혼불』에서는 첫날밤에 소박을 맞은 인월택 이야기가 적혀있다. 첫날밤에 소박을 맞은 여인이 시집의 문중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소문거리인데 무슨 염치로 고대광실 큰 집에 살겠느냐?는 인월택의 뜻은 우리들의 가슴을 막막하고 시리게 한다.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만 해도 호사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인월택을 청암부인은 안쓰럽게 여긴다. 부인은 거명굴과 문중의 경계에 집 한 채를 내려 주고 기거하게 한다. 문중은 종가에 모여 의견들이 분분하였지만 결

국 청암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인월택의 거처를 묵인하여 준다. 인월택에 대한 청암부인의 연민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연민과 각성이며 여성정체성 확인에 대한 시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월택은 그러기를 십삼 년째 되던 해 봄 방죽에 몸을 던졌지만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진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청암부인은 인월택의 방에 베틀을 보낸다. 인월택은 그날로부터 이십 여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베틀 앞에 앉아 살아왔다.

우리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규정해 낸 열이념에 헌신했던 열녀들의 내면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대 가치체계 안에서 가치로 규정되지 않았던 일상적 삶으로부터 여성자신의 삶을 가치와 의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했다. 또한 사회를 지배하는 남성들과 동등한 문화적 존재로서 자아를 확인하는 방안이기도 했던 것이다.¹⁰⁾

여성들에게 사회적 자아가 성숙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요구해온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공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내적욕구가 정책적 의도와 맞닥뜨리면서 갖가지 참혹한 형상의 열녀들을 양산하였던 것이다.

2.5 청암부인의 죽음, 그 영원한 존재와 喪禮

『혼불』은 죽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절차와 의식 속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의 몫을 내밀히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혼불』은 죽음을 모티프로 서사화하여 가족의 운명을 승화시킨 작품으로 볼 수 있다.¹¹⁾ 청암부인의 장례 절차와 장례모습을 길고 세밀히 서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통해서 규방의 문화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죽음은 가족을 새롭게 결속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승되어오는 관혼상제 의식들은 한 가족의 전통적 의식을 이루는 문화적 소산이었다.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모습에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가 가지는 결속력과 아름다운 정서를 읽어 낼 수 있다.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같은 책, p.113.

11) 이혜경, 같은 책, p.219.

청암부인의 죽음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결속력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 새로운 생성과 변이의 양상으로 세계가 전이되어 갈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변형일 뿐 단순한 소멸이 아니다. 죽는다는 것은 공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이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¹²⁾ 청암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할 것이다.

아이고오, 아이고오오.

이기체가 곡성을 터뜨렸다. 울흔택은 머리에서 비너를 뽑았다.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울흔택 앞에서 효원이 호곡한다.

창자가 끊어지는 울음이다.

방안에 낭자한 곡성이 마당으로 흘러 넘치며 기둥을 적시고 캄캄한 밤하늘을 이고 있는 지붕을 잠기게 하면서 굽이굽이 온 마을을 휘감는다. (...) 한밤중의 허리를 가르는 곡성에 소스라쳐 일어나 부싷돌을 찾는다. (...)

가셨고나.

거명굴 사람들도, 어둠을 밀어내며 일어나 앉는다. (...)

매안과 거명굴이 서로 반상(班常)을 가리지 않고 불빛들로 비보(悲報)를 나눌 때, 원뿔의 한가운데 화롯불이 피워졌다. (...)

큰방과 건넌방과 큰사랑, 작은 사랑에 모여 앉아 사람들의 손길이 너나없이 분주하고, 정지에서는 아궁이마다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음식을 차려야 하기 때문이다. 문중의 부인들은 큰방과 건넌방, 그리고 정지에서 소리내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빠른 손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

“청아암 부이인 보오옥(復)”

인월택이 목메이게 고복(辜復)하여 혼을 부르는 소리는 바람이 실어가 먼 곳으로 아득하게 흩어졌다.

돌아오라, 혼백이여.

인월택은 두 번, 세 번, 청암부인의 혼백을 불렀다.

복 부르는 사람은 혼백과 인신(人神)이 통할 만큼 서로 지극한 사람이라야만 한다. 그래야 그 정을 따라서, 떠나가던 허공으로부터 걸음을 다시 돌려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

그래서 내상(內喪)을 당하였을 때만큼은 아무리 유교의 규범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여인이 지붕에 오르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다.

본디의 뜻이 이와 같은 까닭이다.

더욱이나 남녀가 유별한 터에, 안부인의 살에 닿은 속적삼을 사후(死後)

12) 베르나르 포르, 김주경 역, 『동양종교와 죽음』, 영림카디널, 1997, p.81.

에라고 어이 연고 없는 남자의 손에 맡길 수 있으랴.
습렴을 할 때도 부녀자의 상사(喪事)에는 오직 여인들끼리만 시방(屍房)
에 들어 수습하는데.
하물며 일생을 홀로 산 청암부인의 경우애야.

- 『혼불』 (3), pp.121-128.

청암부인의 죽음은 울춘택과 효원의 고부간 갈등도, 문안과 거명굴의 반상의 차이도 다 넘고 넘쳐 초월할 수 있는 결속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한 생을 홀로 살았음에도 의연히 문중의 대들보가 되어 주었던 종부의 죽음을 맞이하여 사람들의 정서는 슬픔 속에서 아름다워진다.

『혼불』에서는 효원의 혼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청암부인의 죽음과 상례(喪禮)에 두고 있다. 청암부인의 습렴 장면에서는 혼례식 초례청의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옷과 죽도리로 시신을 감싸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휘황한 서슬은 이미 이 세상 옷들은 아니었다. 부인의 발아래 앉아 있던 동녘골택은, 명주에 청암부인 혼서지(婚書紙)를 곱게 배접하여 만든 신을 망인의 발에 신긴다.

작가는 상례(喪禮)의 소상하고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청암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 문체는 마치 청암부인의 그것을 닮은 듯 반듯하고 음전한 데가 있다.

2.6 남녀간의 사랑을 둘러싼 규방의 정서

강모의 존재를 소설 『혼불』 속에서 부운처럼 떠다니는 인물로 만들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절대절미한 정서로 인한 것이다. 사촌 여동생 강실을 연모한 나머지 혼인 첫날의 신부를 소박하게 한 강모였다. 누이와 상피 붙어 괴로워하다가 죽은 강수의 망혼제가 있던 날 밤 강모는 기어코 강실을 범하고 만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강실에게는 청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한 사실은 머슴 춘복이의 욕망과 야심에 불을 지피 놓는다. 신분상승의 욕망과 야심에 찬 춘복은 깊은 흡월의식을 끝내고 마침내 강실의 몸을 범접하고 만다.

‘부녀자의 예절’을 가르치고 배끼게 하던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은 효원으로 하여금 깊은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 강모와 강실의 관계를 알게 된 효원의 고통은 ‘칼끝이 살을 찌르며 파고들어 뼈에 미치는 소리였다.

설령 앙가슴의 붉은 살이 다 떨어져 너털너털 녀마처럼 필러이고, 뼈다귀 허영게 드러나 시린 바람에 마른다 할지라도, 박힌 칼날 꼬챙이를 맨손으로 뽑아내고, 나는 가야 한다.

- 『혼불』 (6), p.222.

효원은 어금니가 썩어도 결코 자신의 입을 벌리어 탄식하지 않으리라 한다. 비록 혼자서 자신에게 이르는 말일지라도 ‘이 일’을 두 번 다시 되뇌어 곱씹지 않으리라고 한다. ‘너희들의 그 안개 바깥으로 밀려나 낮설게 떨어져서 무참히 고개 돌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몸을 솟구치리라. ~ 그리고 나를 올리겠으니. ~ 이 안개보다 내 마음이 높아져야, 나는 벗어난다.’고 효원은 외친다.

춘복에게 겁탈을 당한 강실의 임신 소문이 나돌기 시작할 때의 효원은 머리가 팽이를 돌리는 것처럼 어지러움을 느낀다. ‘옹구네도 알고 안서방네도 아는 일이라면, 아닌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내놓고 떠드는 판에 나만 모르고 있었던 말인가.’ 효원은 역장이 막혀 정신수습이 안 되었다.

앞의 것은 나 자신이 당할 일이고, 뒤의 것은 저 사람 당하는 일이 될 터인데, 아니, 저 사람만 당하고 말 것인가. 가문이 온통 썩지 못할 오욕을 무릅쓸 것인데, 그것은 곧 철재한테 명예를 썩을 것인데.

- 『혼불』 (6), pp. 276-277.

효원의 심중은 복잡하고도 미묘했다. 그러나 효원은 강실의 임신 사실이 문중에 알려지고 집안의 어른들에게 탄로가 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순간에서 강실을 구원해 주게 된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으며 아들 철재에게도 그 화가 미칠 것이라는 깊은 판단을 하게 된 순간에 효원의 결심은 미움을 초월하는 연민의 자세를 택하게 한다.

길리간은 성숙한 여성적 양식의 특징을 상호의존성이나 자원의 축적 및 배

품(giving) 등으로 규정하면서 ‘관계성’을 우선시하는 여성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¹³⁾

물론 이것은 효원의 대체를 알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슬기로움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편으로는 효원의 강실에 대한 여자로서의 인간적이며 묘한 연민의 정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실에 대한 ‘배품’과 ‘돌봄’(care ethics)은 효원의 여성으로서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부장 사회의 제도적 그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제를 엿물고 있어서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는 구석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편 지나치게 양반 규방문화에 경도하고 집착한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죽으라고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은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 저만 아는 세상이 있어서…… 이제 …… 부디 …… 그대가 살아서, 나를 용서해 주오,

효원은 강실이의 목숨만이 자신의 생애를 건져 줄 수 있을 것 같아, (…) 강실의 얼굴을 부른다. 강실이가 비록 누향의 시궁창 그 어떤 질곡에 빠져, 말로 못할 더러움을 겪고 있다 하여도, 그네가 온전한 몸으로 살아만 있다면, 효원은 이 무서운 죄책에서 놓여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디에…… 있소……

효원은 등을 구부리고 기도하듯 강실이를 부른다.

그 온 몸에 눈물이 차 오른다.

『혼불』 (10), 326-327.

임신한 강실을 효원의 친정곳 암자에 몰래 보내고자 항아장수에게 딸려 보내었으나, 가는 도중에 웅구네에게 붙들려 거명굴 춘복의 움막에 감금하다시피 갇혀 있게 된 강실이었다. 강실의 행방이 묘연하게 되자, 효원이 강실의 어머니 오류골댁의 원한을 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효원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13)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1994), 길리건은, 남성 정의감을 발전시키는 반면에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프로이트적 통념에 도전하면서 단지 남녀가 도덕성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도덕관이 정의의 윤리인 반면 여성의 도덕관은 ‘돌봄’의 윤리라는 것이다.

살아만 있어 달라고, 깊은 죄책감으로 괴로워 한다. 효원의 온 몸에는 눈물이 차 오른다.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지키려는 효원은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강실이의 존재를 연민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규방 여성의 내훈을 익히 배워온 효원에게 강실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취하게 만든 작가 최명희였다.

2.7. 기타의 규방문화

『혼불』에는 ‘의복만들기’나 여자의 옷매무새, ‘머리 매무새’ 등, 양반 아녀자의 인품과 기품을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규방문화들을 서술하고 있다.

버선발 하나로 며느리의 모든 행실의 척도를 가늠하게 된다는 것, 강실의 어머니 오류골 댁의 뛰어난 침선 솜씨와 옷감 염색하기, 설빔 만들기 등에 관한 아름답고 소상한 이야기들이 문헌록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실려 있다.

또한 ‘장담그기’, ‘젓갈 담기’, ‘첫들의 밥상받기’ 등 규방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음식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술되고 있다.

‘성년의 첫밥’ 이야기를 어머니 오류골 댁에게서 들으며 자신은 그 밥그릇을 채울 일이 없으리라고 한탄하는 강실의 서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 서리 같은 이슬이 함초롬히 맺힌 장독들의 정결함, 그리고 그 뚜껑 위에 바치는 정화수한 그릇의 의미를 생각하며 강실은 자신의 순결을 잃은 처지를 한탄한다.

그러나 강실은 자신이 잃은 순결로 인해 영원히 배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열(列)과 정(貞)의 올가미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마리 애달픈 사슴일 뿐이다. 순결과 정절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혼불』의 규방문화 정서는 조선조의 서릿발 같은 열의 정신에서 한 치의 진보도 없다. 그런데 이 소설의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경우가 되는 것인데, ‘상피’라는 제도의 뜻이 있어 강실은 이중고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상피의 경우에도 강모가 겪는 고통은 강실의 그것에 비해 그 심도가 턱없이 허실하다. 규방문화의 이데올로기가 특히 여성들에게만 그 정절과 순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규방 여성의 교양과 딸교육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서술되

어 있음을 보게 된다.

3. 규방문화와 여성의식

규방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진 문학을 규방문학이라고 한다면, 그 문학은 가부장제의 거울이 될 수도 있다.

최명희의 『혼불』은 규방문화, 특히 호남의 규방문화를 이해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이 그러한 탁월성에도 불구하고 양반문화에 대한 향수가 너무나 강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게 한다. 물론 규방문화의 아름다운 일상사들이 지켜져야 할 부분도 많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부장제라는 제도, 권력의 폭력 밖으로 나가려는 대응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소설에 담겨 있는 규방문화의 한계로 남는다. 『혼불』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계가 다분히 남아 있다 할 것이다. 「가람본토별가」에서는 그러한 대응양식은 오히려 민중의 저력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¹⁴⁾

이제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펼치는 힘있는 여성사를 만듬으로써 지켜져야 할 아름다운 규방문화의 전통을 재창조해야 할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최명희의 아름다운 소설 『혼불』에 나타나는 규방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서 이러한 생각들이 실행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14) 「가람본토별가」에서 토끼는 자라에게 그 부인을 요구한다. 자라부인은 충효열은 하나라고 말하며 토끼와의 동침을 어렵사리 승낙한다. 자라부인은 하룻밤만에 토끼에게 지독한 사랑을 느꼈지만 토끼는 결국 도망을 가고 말았다. 자라부인은 토끼를 그리워하다 상사병으로 죽는다. 토끼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열녀비를 세워주며 자라는 자살하고 만다. 이것은 조선조 유교사회를 냉소하고 비웃고 있는 내용이지만 삶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민중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꿈꾸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고미숙, 『비평기계』, 소명출판, 2000. p.205. 참조)

주제어: 최명희, 혼불, 규방문화, 가부장제, 남성우월주의, 가족제도, 친족제도, 관혼상제, 혼례, 풍습, 시집살이, 음식문화, 흙월, 태교, 임신, 정절, 열녀, 개가금지, 정체성, 죽음, 의복만들기, 옷매무새, 머리매무새, 양반문화

참고논저

- 전혜성·김현진 역,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과 업적」, 『한국사 시민강좌』, 일조각, 1994.
- 정창권, 「조선후기 주자학적 가부장제의 정착과 장편 여성소설의 태동」, 『여성문학연구』, 태학사, 1999.
-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 이혜경, 『혼불』에 나타난 가족-모티프의 풍속화,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창간호.
- 이혜순 외 공저,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 이배용 외 공저,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9.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 열녀담론』, 월인, 2002.

<텍스트>

최명희, 『혼불』 (1-10), 한길사, 1996.

<Abstract>

Myoung-Hee Choi's HONBOOL reviewed
through the Boudoir culture in Chosŏn

Kim, Jeong-Ja

The male-dominating patriarchy in Korea has imprinted in our consciousness filial piety, chastity, obedience, and sacrifice as traditional femininity. This male-predominance has formed the boudoir culture in Korea in the midst of Confucianism including family system, kinship system and every kind of ceremonial customs. To keep up all the rigid ceremonial customs, women in Chosŏn Dynasty had to take charge of all the jobs such as cooking, tailoring, visitor-attending etc.

Consequently, the social status of women was subordinate, and they were expected to live a stoic life setting aside the real ego of themselves. The boudoir culture in Chosŏn could be regarded as the outcome of noble womenfolk's life formed on a basis of these conditions.

HONBOOL by Myoung-Hee Choi shows many aspects of the boudoir culture; it reveals the phase of how women in Chosŏn accepted and overcame numerous patriarchal systems and customs. In the society with strict ranks and classes maintained through matrimony system, food culture, and rigid disciplines and regulations of the married life, it was indispensable for women in Chosŏn to have a great deal of mental pressure from them. Pregnancy and the respiration of lunar energy, besides, deteriorated the women's status into the mere means of family continuance. And the good reputation of virtue and chastity for women is the only alternative for them to convert their routine life into something of value and meaning.

The facts above made them choose to live as miserable ones struggling

for the high chaste reputation. Funeral rites in a patriarchal society are the cultural product with the power to bind up the family members. The death of Madam Cheong-Ahm, the heroine in HONBOOL binds up all family members by overcom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and between the nobles and the commons. In addition, HONBOOL describes various boudoir cultures showing nobility and grace of noble womenfolk such as tailoring and attire of dress or hair.

HONBOOL by Myoung-Hee Choi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pplying the understanding of the boudoir culture in Korea, especially in Ho-Nahm province. In spite of its excellence, however, there is too strong nostalgia for the nobility in the story. Moreover, HONBOOL reveals its limitation in that it lacks the counterplot; the escape from the patriarchy and the violence of power. The re-creation of the excellent tradition of boudoir culture should be done through the creation of vigorous women history by the women taking independent and creative actions toward the world.